

남원의료원, 유관기관과 의료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14일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관기관들이 상호 연계해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지원', '기타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남원의료원, 청소년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업무협약

☞ 송정섭 기자 | Ⓞ 승인 2023.06.15 15:50



(사진=남원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청소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취약 계층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난 14일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시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두 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 외 직원과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시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정일신 센터장 외 직원들이 참여했다.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지원’, ‘기타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시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송정섭 기자 기자

남원의료원, 청소년 건강지원 업무협약 체결

✎ 김수현 기자 | ☎ 승인 2023.06.15 13:51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지난 14일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일신)와 청소년 건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밖 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양측은 협약에서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지원, 기타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의료원·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남원=양준천 기자 | 승인 2023.06.15 14:30



남원의료원 관내 청소년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남원의료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청소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 외 직원과 남원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일신 센터장 외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3개 기관은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지원' '기타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협약' 등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청소년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남원의료원-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윤경선 기자 | ① 입력 2023-05-15 16:08 | ② 수정 2023-05-15 16:08



남원의료원과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4일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제공=남원의료원)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이 지난 14일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청소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날 협약에는 박주영 남원의료원장과 정일신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자원과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지원, 기타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박주영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